

가정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

이 현 아(서울대 연구교수) · 진 미 정(서울대 부교수)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환경으로서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부모 FGI 조사(유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54명의 학부모)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인식, 가정교육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요구도, 가정-학교-사회차원의 가정과 부모 역할 지원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은 인성의 핵심요소로 정직과 성실, 타인 배려와 공감, 사회성, 생명존중 등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고,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방법은 부모의 모범이라고 언급하였다. 학부모들은 크게 인성을 성적과 대결구도로 인식하는 학부모와 인성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의 근원적이라고 보는 학부모로 나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가정내 인성교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교육의 어려움과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가정교육의 어려움은 학교교육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부모 차원, 청소년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학교교육차원에서는 입시위주 교육환경, 학교와의 소통 부재, 교사의 인성부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TV등 미디어환경의 유해성, 군중심리, 장시간근로문화로 부모의 늦은 귀가, 부모차원에서는 무서운 엄마들 문화, 가정내 아버지 부재, 자녀에 대한 그릇된 기대,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부재 등, 청소년차원에서는 빈곤한 청소년 놀이문화, 욕설사용문화, 발달단계상 특성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와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특히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에 대한 제안이 제기되었다.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운동이나 독서, 예체능 활동에 대한 요구와 교과연계방식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셋째, 가정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가정-학교-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정 차원에서는 부모교육활성화(학령단계별 부모교육이수제, 부모교육채널 다양화, 새로운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와 부모네트워크형성(지역중심 부모네트워크활성화, 부모네트워크 활동가 양성, 아버지 네트워크 조직화)을 정책 제안하였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입시위주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 학교의 인성교육 역할증대, 교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안(정규교과내 부모교육 강화, 저학년중심의 체험형 인성교육 강화, 예체능교육 확대를 통한 감성순화교육)을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사회 차원에서는 가족시간 확보 방안(가족사랑의 날 실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조성, 가족친화적인 학원문화조성), 범사회적 인성회복운동(미디어환경 개선, 욕설 등 언어문화 개선, 공동체가치 정립 운동)을 제안하였다.

이상 연구결과는 가정내 인성교육 지원방안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가정-학교-사회 차원에서 모색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도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